

國際的 商品價值論 비판

金 俊 輔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투하된 추상적 인간노동력의 교환물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가치는 상품생산에 토대를 두는 것이므로 세계를 시장단위로 즉시 옮겨 볼 수 없을 것도 같다. 그러나, 국가간 상품교역이 보편화된 이상 국제가치의 개념이 웅당 설정되어야 한다. 일찍이 밀(J. S. Mill), 리카도(D. Ricardo) 그리고 마르크스(K. Marx)에 의해서 국제적 가치의 내재성은 인식되어 왔으나 그 존립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 교역가격에 대응한 '국제적 가치'란 차익지대의 실체와 같은 특수한 제약성을 갖는 사회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즉, 국제적 상품에 관한 價格의 母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또한 일정조건하에 국제적 상품가치의 기준이 바로 金의 가치라 할 수 있다. 국제적 가치논의는 진부한 역사적 산물인 동시에 해명되어야 할 새로운 문제이기도 하다.

I. 머리말 : 學說的 배경

商品의 價値란 널리 그것의 生産에 投下된 추상적 人間勞動力의 交換物로 인식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것은 사실상 國內的 生産物에 한정되어 있는 學說的 요인이었다. 따라서, 商品의 市場價格에 대응한 市場價値의 개념 역시 1차는 國家的 범주로 되어 왔다. 어차피 국가를 市場單位로 보는 형편에서는 국가간 交易商品에 관한 價値로서의 國際的 價値에 대하여는 이와 별도의 개념 설정이 요구되는 所以이다. 그렇다면 한 商品에 관해서 國內的 價値와 國際的 價値의 二重性이나 독립적 對立性을 보게 되는 사정임에도 그 중 國際的 商品價値論(國際價値論)에 관한 한 아직 명확한 개념의 정립을 보고 있지 못한 점이 반문된다. 오히려 현실은 國內的 市場商品에 대응한 國際的 價値의 存立性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편이 오늘날 通說로 되어 있는 과

대한민국 학술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신94-1, 137-044.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주공APT 501-903(자택).

4 金俊輔

정이다. 그도 단순히 國內商品의 古典學派의 ‘相互需要法則論’에 그쳐 있는 形式的 價値論이 보편화한 점, 주지하는 바와 같다. 실지 모든 商品은 그것의 출발이 일단은 國內적 產物로 보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近代社會라 하면 본래 商品價格이 그것을 만든 對象物의 生産費나 生産勞動量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편화한 추상적 勞動力의 交換的 代價로 보아진다. 무엇보다 모든 商品이 物神性으로서 발전된 市場價値化하는 만큼 그것의 추상성이 적어도 國內的 범주에 그칠 수 없는 대상이다. 다만 각국의 현실이 아직은 國內 生産品 國內交換으로 그치는 예가 壓倒的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도 점차 國內的 生産品の 自己 市場性을 넘는 交換力 발로의 경향이라는 점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한편, 世界市場으로 말하면 기본적 生産의 樣式이나 기반이 단순하지 않다. 그 중 資本制 국가와 社會主義 국가 간의 交易이나 그 밖에 서로 다른 體制를 갖는 複數 國家간의 交易 등 均一的 價値로서 규제될 수 없는 특례를 구구하게 보게 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당면한 우리의 과제로서 國際價値를 묻는다고 해도 地球上 모든 국가를 통한 商品交易의 實體로서 적용한다 할 때 理論上 제약성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일단은 전형적 資本制 국가간의 交易을 대상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면한 우리의 전제된 구상이다.

어쨌든 우리는 어차피 傳統的으로 국한된 國內的 勞動(體化) 價値觀을 떠나서 근자의 촉진된 交易의 市場價値에 대응한 새로운 概念을 定立하는 데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현실이 一般商品에 대하여 일단 市場價値化를 피한다 하여도 國際的(交易的) 商品에 한하여 널리 市場價値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론상 모순이다. 설령 근자의 俗說이 國際價値를 國際價格으로 等值하는 試圖도 엿보이나 有效的 의미를 가질 리 없다. 모름지기 國際的 價値 그것을 당장 확인하기란 어려운 문제일 뿐, 적어도 價値없는 價格의 存立性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관철할 수 없는 까닭이다.

사실인즉 우리에게는 일찍이 古典學派이래 형식상 國際價値와 同格의 價値形態를 관념한 바는 없지 않았다. 이른바 ‘相互需要法則’으로서 國際的 商品의 市場價格에 均衡點을 찾았던 밀(J. S. Mill)의 古典的 價格形成을 그대로 내세운 점 오늘에 미쳐 온 有力한 通說이다. 후자는 바로 리카도(D. Ricardo)의 比較生産費說의 선구적 修正論이라 할 만한 것이나 진정한 의미에서 객관적 價値論이 아님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더욱 깊이 들어가 보면 리카도 역시 스스로 勞動價値說에 입각한 國際的 價値의 필연적 존재를 무시하지 않았던 점, 바로 다음과 같은 等價値交換說에 비추어 보아도 立證되는 뚜렷한 배경이다. 즉,

外國交易의 확대는 商品數量的 증가, 따라서 향락품의 총량을 늘리는 데는 매우

유리한 공헌이 되겠으나, 그것이 즉시 나라의 價値額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모든 外國財貨의 價値는 그것의 반대 급부로서 우리 나라의 土地와 勞動의 產物量에 의하여 測定되므로 우리들이 가명 新市場의 발전에 의하여 우리 財貨의 일정량으로서 外國財貨의 2배를 취득한다 하여도 보다 많은 價値를 얻는 것은 아니다.¹⁾

사실, 國際價値가 없는 것이라면 等價的 交換을 異國 사이에 수행할 길이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等價交換을 인정하되 그것의 절대적 基準을 세우자는 것으로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곧 同一 商品의 具體的 價格, 즉 國際的 標本에 관한 市場價値를 보되 그것에 대응한 국제시장의 理想的 價値를 母數로서 관념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일 뿐이다.

마르크스 또한 그의 『자본론 I』에서 國際的 價値(international value)라는 용어와 더불어 리카도에 따른 等價値交換論과 독자적 不等價交換論 등을 전개한 바 있다.²⁾ 그는 우선 '勞賃의 국가적 差等'에 관하여 論及하되 "각기 다른 나라에서 일정한 勞動時間에 생산된 각종 商品의 量은 각기 不等量의 '國際的 價値'를 갖게 되거니와 더욱 그들 價値는 서로 다른 價格(다른 貨幣量)으로서 표시된다. 따라서, 資本制 生産方式이 보다 발달된 국민에 있어서 貨幣(金)의 相對的 價値는 그가 미약한 국민에 비하여 보다 작게 나타난다"³⁾하였던 사정이다. 따라서, 거기에 國際的 價値의 內在性은 분명히 인정되나 아직 그 역시 國際的 存立性을 확연한 형태로써 구체화하지는 않고 있다. 그 밖에 異國間 商品의 價値比較를 감행할 만한 國際的 價値尺度는 그대로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에도 적어도 學說的으로는 그 동안 남겨진 문제이던 것이 이 방면의 역사적 배경이다.

II. 國際的 市場價値의 存立性

지금 資本制 交易商品을 그들의 流通樣態만에 따라서 본다 하여도 실태는 多様하다. 一國의 獨占的 輸出商品이 있는가 하면 多國間 共通 交易商品이 있고, 한편 換去來物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 物物交換의 原始的 형태의 價行들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그 중 資本制 국가와 企業 간의 相互流通을 볼 수 있거니와 資本制 국가와 非資本制 국가 간의 다양한 형식을 볼 수도 있다. 그 밖에 經濟的 植民地나 그에 준한 政治的

1) D. Ricardo [3], chapt. 7.

2) K. Marx [1], kapt. 20.

3) K. Marx [1], kapt. 20.

支配關係를 국제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점 주지하는 현실이다. 그 가운데 去來主體간 不等價交換이 만성화한 동태를 흔히 보게 됨은 각별히 주목된다. 더욱 그 不等價交換의 현실적 조건 또한 多樣的 國面이다. 그럼에도 그들 價値水準을 정확히 평가할 만한 객관적 尺度의 설정이 定論化되어 있지 못한 점, 실로 奇異하다. 바야흐로 國際的 市場價値化는 가속화하는 현실에 비추어 오히려 모든 交易商品이 國際的 價値를 전제하고 있는 所以이다. 그뿐만 아니라 근자 국제경제의 開放化와 世界化는 당장 국제적 市場經濟의 기준적 生産性을 묻는 데 價値의 1차적 定立이 촉진된 배경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개방에 따른 交易商品의 量的 擴大나 質的 分化의 촉구 등이 각 방면에 걸쳐 共通的 價値의 기준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國際的 金融機構(國際通貨基金 또는 世界銀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後進國 開發機構나 交易 擴大 운동(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이나 근자의 세계무역기구) 등의 기구적 전개 또한 바로 국제적 商品價値의 存立性을 전제하거나 촉구하는 운동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매양 多國籍 資本의 戰略的 市場化에 배경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그들 자체 상품경제의 국제화 내지 世界市場의 價値의 基準化에 직결된 기구적 활동의 一面일 뿐이다.

더욱 따져보면 비록 資本制 列國간에 한한다 하여도 地域經濟의 '블럭화'나 국가적 競爭力의 격화 등 일견 世界化에 逆行되는 모순의 동태 또한 없지 않다. 強國의 一方的 힘에 의한 國際的 商品交易의 촉진 운동이 오히려 後進國의 交易를 제약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사태의 진정한 내용은 대개 후진경제의 一時的·偏跛的 開發育成이 아니면 국가적 獨占資本의 利潤 확보 내지 交易 擴大를 뜻하는 姑息的 方便에 그치는 만큼 오늘날 地球上 가장 未開地域의 商品生産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국제적 資本 활동과 분리시켜 관찰할 수 없다. 오히려 각국의 모든 商品은 거의 국내적 價値의 體化物에 앞서 국제적 市場價値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현실이다. 적어도 전체적 기반이 그러한 과정으로 촉진되는 추세임에 틀림없다. 여기에 당면한 價値理論 역시 국내적 價値 범주를 끝까지 固守할 수 없이 당장 '國際的 價値'를 先行的 조건화하고 '國內的 價値'를 부분적 市場價値로서 규정하는 입장을 모색함이 요구되는 기세이다.

물론 전통적 國家 위주의 理論體系를 당장 떠나서 商品價値를 즉시 국제적 市場으로 확대하기에 대상의 실제적 범주에 비약된 점이 없지 않다. 그 점, 일견 資本制下의 價値法則을 體化價値만에 국한하여 현실적 市場價値=生産價格의 母數(parameter)의 特性을 간과함과 같은 흠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양태이다. 바야흐로 商品別 國際的 市場價値의 독립적 存在性이란 일견 공허한 관념같기도 하나 반대로 경제적 현실은 이미 그 점을 끝까지 묵과할 수 없게 되었음은 당연하다. 현실이 그러할 뿐만이 아니

라 이론의 균제성이 적어도 市場的 次元의 확대를 요구하는 까닭이다.

어차피 個別的 交易商品을 형식적으로 보면 국내적 市場價值 이외에 '國際的 價值'란 일견 二重的 假想인 것 같기도 하다. 더구나 국제적 商品 중에는 體化的 價値의 실체란 막연한 것도 있다. 따라서, 굳이 따져보면 國際的 價値 역시 '虛僞의 社會的 價値'⁴⁾(差額地代)와 같은 실체로 관념될 수 없지 않으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地代의 경우 그 價値라는 것이 우선 주어진 生産價格(비용가격+平均利潤)의 범주를 넘는 초과적 剩餘勞動의 범주인 데 대하여 國際的 價値라 하면 바로 주어진 國際的 生産價格에 대응한 國際的 生産價値로 인식되는 대상이 되어 있을 뿐이다. 사실이 그러므로 일부의 論者는 國際的 價値라는 것을 바로 '國際的 市場價格'과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市場價値가 아닌 體化價値論에 불과하다. 여기 論者의 '國際的 市場價格'이란 것이 추상적 市場價値=生産價格의 母數의 개념과는 달라서 구체적 商品의 國際的 現實價格을 가리키는 標本的 개념이란 것, 즉 交換的 요인이 아닌 속성이다. 모름지기 價値의 先行的 인식 없이 어떠한 市場價格도 주어질 리 없다는 문제가 있다. '社會的 價値' 또한 市場價値를 포함하여 하나의 母數임에 다름이 없는 까닭이다.

본래 '社會的'이란 개별적인 것에 대한 集團的(또는 市場的)인 것, 또는 自然的인 것에 대한 人間的인 것, 더욱 利益 共同體的인 것에 대한 階級 對立的인 개념으로서 구분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쨌든 '國際的 價値'의 '社會性' 역시 국내적 일반 商品과 다를 바 없는 市場價値를 넘는 概念이 되겠으므로 요는 母數的 價値 개념이다. 요컨대, 그것은 숨겨진 채 어떠한 市場價格이 현실적 需給 운동에서 형성되는 統計的 기준으로 존립한다. 더욱 그도 여기에 이른바 그것의 '社會性'인즉 差額地代의 實體와 같은 특수한 階級的 제약성(虛僞性)이 아닌 단순성이 주어질 뿐이다.

사실, 초과적 剩餘價値로서의 地代는 資本制下 資本家와 다른 地主의 不勞所得이란 主體的(階級的) 특성을 보유하는 社會的 개념이 되어 있다. 따라서, 國際的 交易價格에 대응한 '國際的 價値'라면 그러한 특수한 제약 조건을 갖지 않는 市場的 價値이다. 오히려 보다 넓은 市場 조건이 되어 있음은 물론이나, 한편 國際的 交易價格 역시 國內的 生産價格(母數인 費用價格+平均利潤)(市場價値)의 관여 없이 주어질 수 없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國內的 生産價格 역시 일단 전제된 관념적 價値 조건이라 하여도 직접적으로는 標本的 水準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交易 當事國의 자체 世界的(국제적) 市場의 標本的 市場으로서 주어진 가운데 그들 각국의 生産品이 국제적 商品價値의 형성조건이 된다고 보아지는 기구적 속성

4) K. Marx [2].

이다.

그 밖에 地代의 형성에 관한 土地의 所有制나 位置나 肥沃度の 차이가 農産物의 價値에 미치는 영향과 國家間的 障壁이 國際的 交易性에 미치는 제약조건과는 그 形態的 差別性이 간과될 리 없다. 우선 市場 조직이 다를 뿐 아니라 특히 體化勞動의 集約度, 즉 商品生産의 能率面에서 볼 때 국가간 수준이 다르다는 점, 주목되는 구분이다. 『資本論』에서도 본 바와 같이 “주어진 한 나라에서는 國民的 平均 이상의 能率水準만이 단순한 勞動時間의 大小로서 價値評價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개별적 國家를 포괄한 世界的 市場에서는 그렇지 않다. … 각 국민적 平均值 모두가 全體的(世界的) 노동의 平均值로서 구성된 單位要因으로서 간주된다. 能率が 보다 큰 국민적 노동이 그것이 보다 작은 국민적 노동에 비하여 보다 많은 價値, 보다 많은 貨幣的 表示量을 생산한다.”⁵⁾ 따라서, 單一商品의 國際的 能率水準은 國內的인 것에 비하여 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앞에서도 본 바이지만 경제학은 國際的 商品價値의 부정을 뜻하지 않은 반면 아직 國內的 商品價値와 國際價値의 相互 관련성을 明示하고 있지는 않다. 國際的 價値의 分명한 計測 방식이 주어지지 않은 점 역시 그 동안의 이론적 제약이다.

사실 리카도에 따라서 마르크스 역시 ‘國際的 價値’에 관련하여 각국간 ‘貨幣的 相對的 價値’와 더불어 貨金水準에 대하여도 言及한 바 있으나, 그들 역시 당면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國際的 價値의 절대적 수준을 밝혀 놓고 있지는 않다. 예컨대, “이 사실로부터 貨幣로 표시되어 있는 勞動力의 等價인 名目貨金도 또한 資本制 生産方法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前後 국민간에 高低의 結論은 주어진다. 즉, 발달된 나라에서 높은 편이다. 물론 그렇다 하여 勞動者의 可處分 生活資料인 實質貨金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 그러나, 각국에서의 貨幣價値의 相對的 差等を 떠나서도 우리는 가끔 日給 또는 週給 등의 貨金이 先進國에서 後進國보다 높은 반면 相對的 勞動價格, 다시 말하면 剩餘價値나 生産物의 價値에 비한 그것이 後者에서 前者보다 높은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⁶⁾는 점 역시 분명히 評價上 절대적 기준을 요구하는 국면일 뿐이다.

한편, 先進國의 資本集約的 生産品인 低價價物에 의한 後進國의 勞動集約的 高價價物의 取得을 흔히 不等價交換이라 하는 것이나 그 점의 정도 역시 ‘國際的 價値’의 전제 없이 논의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前者에 의한 後者の 利得(收取)을 말하는 예이지만, 그에 앞서 뚜렷한 商品別 기준이 요구될 것은 당연하다. 더욱 리카도 이래 比較生産費說의 해명 역시 ‘國際的 價値’의 설정을 요구한 점 또한 알만하다. 그것

5) K. Marx [1], kapt. 20.

6) K. Marx [1].

없이 결론은 언제나 불확실한 내용만이 주어지는 까닭이다.

그 밖에 좀더 자세히 引用된 『資本論』上的 命題에 의하여 볼 때 ‘國際的 價値’의 구성요인인 各국別 商品價値의 總체적 平均値와 國內的 體化價値의 市場價値化한 것을 비교한 결과 또한 前後 母集團을 달리하는 國際的 價値 비교란 점에서 總체적 기준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다. 즉, 商品別 ‘國際的 價値’와 國內的 體化價値를 市場價値의 總체적 平均値로서 推定하는 母數는 같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마르크스의 이른바 外國貿易의 단순한 使用價値 交換이 가져온 兩者間 價値의 損益相計論은 당연하지만 사실상 내용이 쉽게는 數量的으로 平價된다 할 수 없다. 예컨대, 본래 ‘外國交易’은 그저 國內 生産物을 使用形態나 現物形態가 서로 다른 物品과 바꾸는 일이 될 뿐, 價値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이다. 더욱 一定規模의 再生産이 진행되는 한 “生産 수단과 消費 수단의 두 부분이 價値變動의 比率이나 더욱 이들 부분의 각종 生産物의 價値分解로 보여 주는 不變資本과 可變資本 및 剩餘價値의 比率 역시 영향을 받지 않는다.”⁷⁾는 점, 알만한 경우이다. 이 점, 실로 等價交換의 自然法則으로서 당연한 명제일 뿐이나 그럼에도 정작 一定規模의 再生産 과정 밑에 交易의 결과가 國內적 價値 구성이나 ‘國際的 價値’의 구성에 比率의 增感을 끝까지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문제로서 남게 된다. 즉, 이미 본바와 같이 價値形成上 地域的 分割구조에는 사실상 價値平均化의 計算(認識)에 관한 國內적 조건 외에도 우선 국가간 不等價交換의 문제도 실지는 얼마든지 관련 요인으로서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요구되는 市場價値로서의 國際的 商品價値는 분명히 예상된다는 것이고, 더욱 그것이 國內的 價値와 독립적으로 주어질 것은 논리상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이른바 國際化 또는 世界化의 總체적 動態에 대응하여 앞으로 오히려 무수히 많은 商品이 國際的 價値만을 고유한 價値로서 인정할 만한 단계에 접근하여 있다고 일단 볼 수 있다. 즉, 모든 商品價値는 모름지기 각기 體化價値를 넘어서 總체적 國際價値로서 社會化한 운명의 과정으로 향하는 속성이다. 따라서, 결론은 당연히 國內的 價値의 독립성 부정에 연결된 발전적 인식이라 할 수 있으나 다만 國際的 價値 자체 國內的 價値를 떠나서 檢證이 사실상 쉽지 않다. 아직 그것이 國內的 價格變動의 基礎軸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는 현실과 더불어 개별적 商品의 현실적 體化價値를 끝까지 간과할 수 없는 諸般조건 역시 당장 버릴 수 없는 까닭이다.

더욱 資本制 生産性이 높은 先進國의 相對的 價値(貨幣=金)에 의하여 後進國의 높은 價値를 갖는 同一商品이 買入되는 不等價交換의 경우 분명한 價値移動과 더불어

7) K. Marx [1].

어 富益富 貧益貧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 점은 外國 貿易이 當事者 각국에 유익하다는 俗論과 상처되기도 하나 그 어느 것이나 일정한 國際的 價値를 전제로 요구하는 理論으로서 주어질 수 있을 뿐이다.

Ⅲ. 國際的 商品價値와 金 문제

“金·銀은 본래 貨幣는 아니나 貨幣는 본래 金·銀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金이나 銀, 특히 金이 世界的 交易의 보편적 媒介物이며 ‘國際的 價値’를 대변하는 대표적 素材임을 시사하고 있다. 金 자체가 한때 資本制 多數國貨幣의 價値를 표시함으로써 각국의 市場에서 商品價値의 조절적 尺度로서 일찍이 通用되어 온 점은 뚜렷한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19세기 초 영국에서 비롯된 각국의 金本位制이었으며 실로 金은 그로써 世界的 換價의 安定에 기여한 적극적 交易의 補完 수 단임을 자랑한 바 있었다. 따라서, 그것은 제2차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世界貨幣로서의 地位를 명실공히 굳혔다고 보여지기도 한 것이 近代的 貨幣史이다. 그럼에도 물론 金本位制는 金이 당장 國際的 價値의 완전한 基準으로 쓰여지기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一國의 外換價 安定에 적극적 의미를 가졌을 뿐이다. 그 가운데 金은 그 후 영국의 파운드나 미국의 달러貨와의 국제적 併用을 보게 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에 이르러 그것의 信用力은 低落하여 이미 일반적 等價物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게 되어 있다는 점이 주지되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信用制度의 확대와 不換銀行制의 보급이, 정작 金을 國際的 交易商品의 價値尺度로서 보기에 世界性이 미흡한 바 없지 않았으나 특히 金生産의 世界的 不足과 金貨의 국가적 偏在 등의 문제는 당장 뒤따랐다. 金 스스로 너무나 부단히 價格變動을 해 왔다는 약점 또한 점차 金本位制의 폐지를 世界化할 수밖에 없게 하였으며, 同制度의 復歸를 주저시키는 각국의 현실적 동인이 되었을 따름이다.

어쨌든 交易과 信用의 視野를 世界經濟의 무대에서 다시 반성하고, 특히 戰時 交易의 경우를 예상할 때 현재 金의 價値 基準의 성격이 결정적으로 消失되어 버렸다 할 수는 없다. 앞에서 본 국제통화기금의 設立 목적이 요구한 汎世界的 交換性은 바로 제2차세계대전 후 世界的 交易 換價의 安定을 기하기 위하여 加盟 각국의 平價水準을 一定量의 金 또는 달러(金 1온스=35달러)에 연결시키도록 協約함으로써 당장 이를 立證하였던 실정이다. 물론 이 協約이 각국간 반드시 固定的으로 준수된 바는 없지만 그도 대개는 一國에 한한 金集中이나 金不足 사정에 연유한 現象이었을 뿐 결

코 金의 世界貨幣의 기능에 대한 부정된 사태로 종결되었다 할 수 없다. 世界的 信用次元에서 볼 때 金 그것이 바로 供給의 安定性이나 信用力의 발휘면에서 長期的은 못될망정 그가 國際的 價値를 반영하는 가장 理想的 財貨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알고 보면 일찍이 世界交易의 발달과 더불어 金本位制의 실시를 널리 보게 된 배경 자체 어차피 金의 國際的 價値性을 어느 정도 世界的으로 공인한 반증에 불과하다. 다만, 이 때의 金本位制 자체를 말하면 아직 각국이 通用한 中央銀行券을 일정 量의 金으로 태환한다고 公示함에 그침으로써 信用力을 國權에 의하여 保全하는 형식으로 보였을 뿐이다.

사실 金이 갖는 國際的 交易의 基準性은 國際的 공인만에 의하여 주어지는 성질이 아니며, 그 본성은 더욱 『資本論』上的 다음과 같은 해당 句節, 즉 “資本制 生産方法이 보다 발달된 나라에 있어서 貨幣(金)의 ‘相對的 價値’는 그것이 보다 미약한 나라에서 보다 작다”는 명제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그도 아직 相對的 價値로서 ‘계약된’ 金의 世界性 자체는 아직 남아 있는 문제이나 요컨대 여기에 留意되는 또 하나의 점은 각국의 기본적 生産力 수준이 同等할 때 金에서 기대되는 國際的 換價는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世界的 貨幣로서 기대되는 金의 價値的 基準性 역시 증가된다는 속성을 시사한 국면이다. 즉, 이 때에 한하여 金의 同一量은 勞動量의 價値的 均一化를 기대하는 조건에 일치된다는 것이며, 金의 國際的 價値性 역시 名實共히 좀더 확실히 구체화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건 밑에 정작 金의 價値는 곧 國際的 交易商品의 기준, 즉 國際的 交易尺度로서 완전한 通用이 실현되는 이치이다.

그러나, 국제적 현실은 金의 國際的 價値化는 고사하고, 우선 그것의 원활한 需給 조건조차 쉽게 달성될 리 없게 하였다. 金의 價値, 즉 각국 貨幣의 相對的 價値는 金本位制下에도 구구한 것이 사실이었다. 알고 보면 金本位制 자체도 法定貨幣制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自由的 경제의 토대 위에 전개되는 유일한 방식이 아니며, 價値的 限界性은 너무나 뚜렷하였던 제도이나, 다만 金의 본래적 貨幣 適格性이나 그것의 稀貴的 특성은 東西古今에 다름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經濟의 발달이 國際的 生産力의 平準化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그 점만큼은 金의 國際性과 價値性이 평가되는 조건이다. 따라서, 金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적어도 商品交換의 終局的 清算 수단이 될 수 있고 國際的 債權 확보의 信用力은 쉽게 喪失되지 않는 物的 대상으로 通用되어 있는 실정을 간단히 무시할 수 없다. 國際的 價値論에 관련하여 金이 매양 논의의 中心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所以다.

물론 현실적으로 각국의 貨幣名目主義는 오늘날 貨幣의 價値를 그저 商品의 購買力으로 보는 경향이므로 이른바 金無用論의 橫行은 널리 전개되고 있다. 바야흐로 絶

對的 價値尺度는 결여된 가운데 物價指數인 相對的 指標만이 널리 쓰여지고 있다는 점도 주지하는 사실이다. 구태여 지금 참고삼아 이에 직결된 전통적 金無用論의 근거를 좀더 정리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 ① 金은 이미 商品의 일반적 等價物이 아니라는 것. 특수한 財貨의 使用 價値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것
- ② 金은 개별적 商品의 體化價値를 비교할 수 있을지언정, 정작 平均利潤이 부가된 生産價格의 尺度機能을 보유하지는 못한다는 것 - 이는 곧 金의 價値的 評價 기능을 부정할 뿐 아니라 모든 貨幣의 市場價値에 대한 尺度 기능을 부인함과 같다.
- ③ 더욱 金本位制下에서는 價格과 價値의 補充조건의 安定性이 缺如되어 있다는 것
- ④ 金의 국가별 生産量이나 保有量이 쉽게 均衡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 오히려 그것의 不均衡이 일반적이라는 것
- ⑤ 金을 떠나서도 세계경제나 국민경제의 운영은 信用제도의 발전에 따라서 合理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管理通貨制는 오히려 必然的이라는 것

그렇다면 金은 이미 단순한 商品의 성격에 그친다는 것이 通說임은 대체로 시인되나 아직 그 자체 世界的 貨幣價値의 성격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본 바와 같다. 모든 商品의 體化價値는 당장 그로써 評價되지 않으나 商品의 市場價値, 즉 社會的 價値는 그로써 어느 정도 推定하거나 비교할 수 있을 만큼의 安定性이 다소 그에게는 인정된다. 특히 戰時와 같은 비상사태에 있어 金의 公信用은 무시할 수 없는 대상이다. 여기에 金의 商品性을 넘는 貨幣性의 兩面이 아직 지목되는 동시에 무엇보다 그것이 國際的 價値化의 實在論的 대상임을 반증하고 있다. 바로 國際的 價値와 대결하는 商品이란 점, 처음부터 무시될 수 없는 金의 世界史的 고유한 속성이다.

어쨌든, 金 그것이 만약 국제적 商品價値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短期的이나 世界的 貨幣의 성격을 갖는 기준적 尺度란 속성, 즉 等價性이 體化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때에 비로소 모순없는 國際的 交易의 評價는 그로써 일단 가능하다. 그렇지 못한 현실은 실령 비교 가능한 商品價値라 하여도 絕對的 市場價値로서는 언제나 評價不能이란 점, 리카도의 比較生産費說에 관하여서도 인정되는 문제의 이론이다.

金의 위와 같은 속성에 따라서 흔히 商品에 대한 貨幣의 購買能力評價에 金의 價値를 이용한 慣行의 근거 또한 어느 정도 수긍되는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즉, 金價의

推移로써 世界的 景氣를 計測함과 같은 예이다. 다만 그것이 엄격한 현실적 방식이 될 리는 없고 景氣的 동태만을 다루는 수단이 될 수는 있다. 더욱 商品에 따라 그로써 短期的으로는 國內外的 基準價格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는 만큼 실지로 그들 交易商品의 自然價格을 어느 정도 推定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다.

사실, 設立 당초의 國際通貨基金이 金 1온스=35달러로 연결시켜 換算한 것은 역시 당시의 世界的 金本位制 各국의 商品價値와 미국의 貨幣價値를 감안한 결과로 보아진다. 즉, 金の 國際價의 信用度를 공인한 市勢이다. 따라서, 그도 옹당 당시의 국제적 商品價値를 예상한 구체적 評價방식으로 보아서 무방하며, 요는 그를 基準삼아 되도록 各國 通貨의 換率을 長期間 安定시키려는 취지로서 알려진 조치이다. 다만, 그 후 몇 년을 경과한 다음(1971年 8月) 위의 換率이 지켜질 수 없이 廢止상태로 된 점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그것은 당시 金の 世界的 生産 상태에 비하여 국가간 金保有量이나 달러의 심한 過不足 상태에 어려움이 있었던 소치이나, 사실인즉 국제통화기금의 취한 바 처음 換率의 폐지 변동이나 그 후 SDR 制의 기능이 그런 대로의 國際價値의 새로운 성과를 확보한 결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또한 國際的 價値의 필연적 요구의 반증인 例이다. 더욱 앞으로 돌아가서 國際的 價値에 따라서 달라지는 貨幣額의 표시, 즉 '貨幣(金)의 相對的 價値'에 관한 마르크스의 命題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이 때에 國際的 價値 문제에 관련하여 좀더 유익하다. 그것은 곧 資本制 生産이 발달하여 勞動의 國民的 強度나 生産性이 높은 나라일수록 貨幣(金)의 價値는 相對的으로 작다는 것이며, 그것이 時間當 勞動量, 즉 勞動效率을 높임으로써 名目貨金, 즉 '貨幣로서 표시된 勞動力의 평가'를 높이는 조건이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결론은 옹당 이 때에 名目貨金과 實質貨金の 변동방향이 언제나 같다는 뜻이 아니라 는 점이 되겠으나 당면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인식은 貨幣를 金으로써 대표시키고 있다는 점과 아울러 國際的 商品價値와 貨幣量(金量)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도 오늘날 金 자체의 價値의 評價에 관련하여 이들 명제의 현실적 연결성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구구한 견해의 대립을 볼 수 있는 실정일 뿐이다. 어쨌든 오늘날 金을 포함하여 모든 상품에 관한 '國際的 價値'의 기준을 완전히 떠나서 현실적으로 金이나 貨金 문제의 正常的 배경 역시 밝히기에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굳이 國際的 價値의 存立性을 부인하고 價値 그것을 그저 商品의 '國際的 交易價格'으로 바꾸어 인정함에 그친다면, 그것은 金の 문제를 떠나서 실로 國際經濟學의 存立性을 포기하게 되는 이치이다.

여기에 逆說의이나마 우리는 金の 特性을 살려서 다시 金本位制의 復歸를 기도할 수 없지 않다. 즉, 어느 정도 國際的 市場價値에 대응한 金の 安定的 價値性을 전제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함과 아울러 價値의 국가간 均衡的 移動條件을 金과 더불어 찾

는 요령이다. 사실 경제의 현실은 국가간 交易의 비중이 커지는 동태에 따라서 적어도 金의 價值的 安定을 위한 국가간 移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특히 그러한 이동조건이 國際的 價值的 自律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소치이다. 사실, 이 방면의 理論 또한 일찍이 古典學派이래의 研究 테마로서도 알려져 있는 범주인 동시에 국제 경제는 어느 정도 그러한 접근의 계기를 현실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우선 社會的 價値로서의 國際的 商品 價値의 구성조건을 구체화함에 國際的 價値移動의 과정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더욱 長期的으로 보면 固有한 國內的 平價의 均等化 실현을 향한 自律的 운동 또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물론 국가간의 不等價的 價値移動이라 하여도 原則으로서는 金을 포함하여 商品別로 一物一價의 法則운동을 전제로 한다. 이 때의 價値 역시 商品의 體化價値만을 1차적으로 對象化한 구상에 불과하다. 리카도의 이른바 比較生産費論이 바로 이러한 전제조건 위에 주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더욱 金本位制의 어떠한 구상 또한 옹당 國際的 價値論과 無緣한 價値 주장이 아니며, 國際的 母數인 市場的 價値概念을 전제로 삼는 견해이다. 실로 交易 그것이 기준적 價値 없이 순수한 體化勞動力의 差에 基因한 동태로 되어 있다면 본래 自由競爭의 交易 조건에 있어서 合理的 평가는 있을 수 없다. 國際的 生産費(力)의 比較論的 의미 역시 세워질 수 없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전망이다.

IV. 國際金融과 物神性

國際的 分業은 본래 商品의 交易에서 가장 뚜렷한 의미를 갖게 되나 그것은 점차 資本의 移動관계로 바뀌게 됨을 알 수 있다. 전자의 후자에 의한 對替운동은 근자 가장 크게 눈에 띄는 資本制 各국간 去來의 行태이다. 그것은 옹당 獨占資本制의 進行을 뜻하게 되며 金融資本(finanz kapital)의 이름에 대응한 발전상을 말하고 있다. 商品에 관한 體化價値의 市場價値化 운동이 촉진된 가운데 貨幣(資本)의 物神性이 날로 강화되어 가는 점, 이에 대응한 동태이다. 바야흐로 國際金融의 동태, 즉 金融資本의 國際的 貸借나 產業資本의 국가간 直接移動은 무엇보다 物的 거래의 多重化와 아울러 人間疎外의 조건을 가중한다. 형식상은 곧 商品의 交易이나 資本의 移動이라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매양 숨겨진 資本의 勢力的 침투로서 특징화한 것이 이 때의 物神性이다. 資本移動의 主體 역시 한 나라의 國庫의 支出인 것인지 民間企業間의 거래를 뜻하는 것인지 이 때에 正體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허다하다. 그들 활동 목적이

利潤追求에 있음에도 外形이나 名目이 支援이나 開發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市場開拓에 목적이 숨겨진 예를 보는 등 얽혀 있는 사태로 진전되며, 더욱 어음이나 手票 등 清算의 절차상 代用貨幣의 거래방식만 하여도 복잡성은 날로 가증한 형편이다.

사실 金本位制의 解體를 보게 된 오늘날 國際金融의 범주에 속한 信用換의 구구한 형태 역시 목적이 다기하다. 더구나 國際的 價值尺度가 아직 定立되어 있지 못한 과정에서 貿易收支의 평가는 고사하고 國家間 貸借의 決濟나 新舊어음의 정상적 가치 평가를 公正히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찾기에 매우 막연한 국면이다. 무엇보다 거기에 국제적 換價의 부단한 변동을 예측하거나 확인하는 기술적 방법을 발견하기에 쉽지 않다. 國際金融에 관한 資本移動이 뜻하는 이들 物神性的의 강화운동 자체, 필경 巨大資本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키거나 그들의 投機的 性向을 은폐한 소치일 뿐이다. 국가간 交易의 발달이 국내경제를 교란할 뿐 아니라 金融資本의 세력적 운동은 실로 國權을 넘어서 발동한다. 그것은 이른바 '不確實'의 확대 경향이라 하겠으며 결과는 매양 國際資本에 의한 多國籍企業의 行態로서 대개 그들의 不等價交換의 利得의 기회로 낙착되는 동태이다.

바야흐로 金融資本의 後進國에 대한 세력적 浸透를 방어할 경제의 효과적 방도는 사실상 없다. 그들 被支配國의 金融機關이나 大小企業 역시 흔히 一方的으로 조종될 뿐 아니라 制裁되기도 하는 것이 솔직한 내막이다. 더욱 國際政治 운동 자체가 매양 國際資本의 총체적 축적 운동일 뿐 아니라 被支配國의 각종 후진적 경제요인에 대한 先進 支配資本의 숨겨진 物神性을 강화하는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이와 같은 발달에는 급기야 勞動疎外の 요소적 介入을 보게 마련이다. 결과는 어차피 物神崇拜 내지 拜金思想의 사회적 팽대를 초래할 따름이므로 단순한 價值法則의 운동인들 個人이 알 수 없는 구구한 名目을 넘어서 價値의 全體論的인식을 大衆에게 요구할 뿐이다.

國際金融은 본래 資本(貨幣)의 國際的 去來를 뜻하는 概念이지만 貿易(商品)에 대한 投資 자체 國內外的 貨幣的 交換에 직결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러한 國際金融은 貿易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심장을 뜻함이다. 그것은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제의 운동법칙론에 대응한다. 즉, "貿易에 投下한 資本이 비교적 높은 利潤을 얻게 되는 것은 여기에서는 첫째로 生産條件이 뒤떨어진 開途國의 生産品과 競爭한 결과 先進國의 편이 상대방보다 싸게 판다 하여도 보다 높은 價値로써 팔게 되기 때문이다. ... 이것은 마치 新發明이 보급되기 전에 그 발명을 利用한 工場主가 경쟁상대보다 싸게 팔면서도 자기 生産品의 개별적 價値보다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과 같다."⁸⁾ 따

8) K. Marx [1].

라서, 國際的 貨幣의 流通과 商品의 流通이 병행되고 다시 국제간 生産이나 所得 또는 消費構造와 복잡하게 연결되며 변동한다. 이 때에 이들 對象物이 갖게 되는 商品의 體化價値에 관한 物神의 效果만도 실로 超國家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결과는 여기에 구구한 새로운 경제조건의 物神의 발전상이 수반되는 이치이다.

1930년대 초의 世界的 大恐慌을 비롯하여 근자 資本制 各國에서 경험한 景氣破局의 大變動이 국면의 1차적 動因이나 심각한 波及효과를 우선 國際金融에 직결된 各國의 信用不足에서 찾게 된 계기는 불만하다. 그것은 바로 물신성의 극치적 폭발로 이어지는 人間 소외의 世界史的 전형이다. 이 점이 우선 弱小國 大衆의 失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資本制 경제질서나 전체적 市場經濟에 마비상태를 몰고 온다. 그 가운데 價値法則의 은폐된 동요 또한 計測不能의 심각한 조건을 가증할 따름이다. 그것은 실로 戰時를 방불케 한 경제적 危局이 아닐 수 없다. 이 때에 대중의 消費缺乏은 면할 수 없게 되나, 우선 勞動力과 生必品の 國際的 價値를 확인할 길은 막연한 가운데 企業的 交易활동의 장래를 예측 불허의 상태로 빠뜨리게 하는 氣勢 또한 격화되게 마련이다. 무거운 인플레이션과 급박한 貧困의 重壓만이 약속된 사태로서 전개되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초래할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국가의 경제적 국면이 物神의 조건을 강화함과 아울러 그 價値的 實體를 밝히기에 사태는 너무나 착잡함을 보여 줄 뿐이다. 그 내용은 단순한 價値法則의 왜곡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자본제 경제의 전체적 동요, 獨占資本의 본격적 형성에 대응한 위기국면의 심각한 전개, 따라서 物神의 운동의 보편화를 뜻하는 非常의 현상이 증첩되어 있는 까닭이다.

V. 國際的 價値의 變動論

사실을 말하자면 用語上은 國際的 價値論이 전통적으로 없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貿易品의 기초적인 價格變動論이었다. 따라서, 일찍이 그 중심은 靜態의 가치의 交換論이며 換決定論으로 특징화한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이 발전된 時流와 더불어 거기에 資本의 移動이 수반되는 동태적 세계경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후자는 일단 國際的 金融論으로서 종합될 수도 있을 만큼 國民經濟의 變動機構는 오늘날 좀더 세계화한 價値體系로 정리된 셈이다. 다만 오늘날 이들의 두分野는 다 같이 진정한 國際的 價値의 명확한 인식을 전제로 요구한 市場의 논의라는 점에서 비로소 구체적 의미는 부각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구구한 國內的 價値 이외에 고유한 國際經濟的 價値나 후자의 成長조차 무시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지는 속

성이다.

첫째로 商品의 貿易(交換) 그것이 국가에 대한 價値(國際的 價値)의 增減을 가져 오지 않는 相對的 方式에 불과하다는 점은 일찍이 리카도나 마르크스의 貿易論에서도 분명히 언급된 靜態論이라 할 수 있다. 이미 본 바이지만 마르크스의 再生産論이 표시하는 等價交換의 論旨 역시 바로 여기에 그의 價値去來의 의미를 확대하는 同類이다. 즉, 一定한 再生産 조건 밑에서는 “外國貿易은 그저 國內生産物을 使用形態나 現物形態를 바꾸기만 하여 價値關係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生産手段과 消費手段이란 두 부분을 서로 바꾸어 놓을 뿐 價値의 比率이나 또는 그들 부분이 生産物의 價値로 분해되는 不變資本과 可變資本 및 剩餘價値의 比率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⁹⁾ 더욱 이른바 換決定論은 商品價値의 결정 이후의 문제이므로 당연한 논의를 넘는 범주이지만 위의 國際的 等價論 그것이 國際的 不等價論과 모순된 점은 일단 불만하다. 그 밖에 換心理論, 貸借論, 購買力評價說 등 다 같이 형식적인 國際的 商品에 관한 靜態的 需要供給論의 別名일 뿐이다. 문제는 그들 자체 마치 어떠한 價値 변동의 의미를 갖는 것같이 논의되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 중 카셀(G. Cassel)의 購買力平價論이 가장 널리 논의되는 換決定論인 듯 하지만 그 자체, 즉 리카도의 古典的 交換論에 불과하다. 더욱 그것은 리카도 貿易論의 價値 等價說이나 마르크스의 그것과도 背理되는 商品去來의 名目的 交換論에 불과한 견해일 뿐이다. 그러나, 資本의 移動에 이르러서는 國際的 價値의 國家間 變動이 분명하다. 그것은 移動兩國의 國內的 價値(있다고 보면)뿐만 아니라 尙당 世界的 勞動 生産力(價値) 또한 增減되는 까닭이다.

물론 移動하는 資本의 종목에 따라서 國際的 商品價値에 구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移動 前의 當事國의 生産性이나 生産부문에 따라서 또한 構造的 동태는 多様하다. 價値增減의 派生效果나 이른바 加速度의 原理나 投資乘數의 기능 역시 일률적이지 아닌 변동요인이다. 자본의 活動期間이나 投資條件 등이 國家別 價値 또는 剩餘價値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 그간에 國際的 價値의 명확한 定立없이 國內價値와 國際價値의 計測이 언제나 간단히 總體化하지는 않는다는 점은 쉽게 알만한 범주이다.

資本移動과 國民所得의 派生效果를 計量化한 模型 역시 필연적으로 多様하겠으나 그것이 곧 國內 價値量이나 國際的 價値量의 平價를 스스로 基準化할 수는 없다. 따라서, 國際價値의 存在를 전제삼아 自己모형을 檢證할 수 있을 뿐이다. 구태여 一例를 들고 보면 이른바 먼델-프레밍(Mundell-Fleming) 모형과 같은 케인즈(J. M.

9) K. Marx [1].

Keynes) 理論의 확대 均衡형식은 유명하다. 그도 본래 貨幣의 需給量과 內外 利子率의 均衡조건 밑에 貿易收支를 고려한 國民總生産의 推定방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가 각별히 海外利子率의 變動을 중시한 구조로 되어 있을 뿐, 뚜렷한 價値기준의 동태를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과연 그로써 世界經濟의 開放體系에 임하여 우선 國際的 商品價値의 合理的 計測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인지부터 내용은 문제이다.

리카도는 일찍이 完全自由貿易의 경우 等勞動交換(等價値交換) 法則을 내세우고 勞動이나 資本의 移動이 제약된 不完全競爭의 경우는 국가간 不等勞動交換 法則이 형성되는 점, 이미 言及한 바와 같다. 前者는 본성이 國際的 價値에 대응하고 후자는 이른바 比較生産制度下의 國內 商品別 價値(體化價値)를 비교하는 개념이다. 알고보면 이른바 먼텔-프레밍 모형인즉 일단 후자에 속한 靜態的 檢證模型이라 할 수 있다. 그도 기준을 갖지 못한 그것의 特例일 뿐이다.

사실은 國際的 價値란 국가간에 주어진 일종의 自然價格에 해당하는 理想的 市場價値이므로 기본적으로는 物神性을 갖는 통계적 母數라는 점, 이미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外變數이므로 우리는 얻어진 不等勞動量的 交易의 결과를 종합하여 前者에 대응한 標本的 數値로서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셈이다.

더욱 理想的 母數인 國際的 價値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한 때 金이란 貨幣로서 관념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오늘날 굳이 말한다면 달러貨로서 代替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交換의 公平性이나 安全性이 보장되지 못한 方便的 代用貨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당연한 결론이다.

한편, 리카도의 價値概念을 좀더 구체화한 國際的 均衡價格, 즉 換均衡價格의 개념으로서 우리는 앞에서 본 바 밀(J. S. Mill)의 交易商品에 대한 需給均等の 法則을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이 점은 바로 標本的 交易商品의 物物交換을 전제한 國際價値의 推定模型이다. 따라서, 앞에서 본 換決定論으로 알려진 換心理論이나 貸借理論이나 購買力 平價說 등이 밀의 이른바 相互需要法則에 직결된 견해라는 것은 거의 분명하다. 더욱 그가 事後의 名目的 價値論에 불과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國際的 價値論에 未及함은 물론이다. 사실, 진정한 決定的 기준은 끝까지 理想的 市場價値로서의 國際的 價値 이외에 있을 리 없다. 그러므로 전통적 換決定論은 그것을 대변하는 物的 代用으로서의 金貨나 달러貨를 인식하는 그 점에도 미치지 못한 관념론에 그쳐 있을 뿐이다.

그렇다 하여 國際 경제의 현실이 우선 국가간 資本移動에 따른 價値變動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우리는 國內的 價値體系의 확인부터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뚜렷하다. 그것은 오히려 전자의 等價値交換에 대하여 국가간 不等價交換의 경우를 국내적 價値計測의 修正으로 重視한 입장이라 할 수도 있다. 이 역시 國際的 價値의 전제를

뜻함에 틀림이 없다. 어쨌든 결론은 역시 “勞動의 強度가 모든 産業부분에서 동시에 같은 정도의 水準이 된다면 新水準의 強度가 보통의 社會的 기준이 됨으로써 外延量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勞動의 平均強度가 나라에 따라서 다르다는 데 틀림이 없으므로 나라에 따라서 다른 각국의 勞動日에 대한 價値計測의 適用을 修正할 것이며, 강도의 보다 큰 一國의 一勞動日은 強度의 보다 낮은 他國의 一勞動日에 비하면 보다 큰 貨幣量(價値註)에 의하여 표시된다.”¹⁰⁾

Ⅶ. 결 론

우리는 國際的 交易商品에 관한 價値를 전통적 國際理論에서와는 달리 商品의 體化價値나 國際的 價格으로 보지 않고 世界的 市場價値로서의 國際的 價値를 독립적 存在로 인정한다. 그것은 國內的 市場價値의 論理的 확장 개념이다. 그 점 마치 貨幣로서 金이 일찍이 한 때 世界的 價値의 基準의 속성물로서 인정된 개념을 넘는 범주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견 金本位制의 復歸를 의도한 것 같기도 하나 그 점 오해이다. 여기에 필경 勞動價値로서의 國際的 價値란 世界市場을 기반으로 한 商品의 구구한 국제적 價格에 관한 통계적 母數인 價値를 추구하는 입장이 되어 있다 하여도, 이 國際的 價値는 資本制 各國을 통한 개별 交易商品의 世界的 市場價値이므로 구체적 計測은 현실적으로 쉽게 용인될 리 없다. 일정한 市場內의 구구한 商品價値(標本的 生産價値)의 理想的 實體로서 주어진 母數일 뿐이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 것은 분명하므로 굳이 구체화한다면 金의 역사적 성격에 비유되는 基準的 尺度와 같은 物의 市場價値를 모색한다 할 수밖에 없다. 그도 1차적으로는 金이 예상되기도 하나 현실에 비추어 당장 이점을 확보할 길이 쉽지는 않은 실정이다. 어쨌든 國際的 價値란 交易商品價格의 기준에서의 自然價格이며, 그것의 전제없이 리카도의 ‘比較生産費說’이나 마르크스의 ‘不等價交換論’ 등의 명확한 해명이 불가능시 될 것은 당연하다. 밀의 換需要說이나 구구한 전통적 換決定論 역시 근본적 效能이 불분명한 속성에 그치는 만큼 국제경제학의 正常的 발전인들 기할 수 없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世界經濟의 현실은 분명히 점차 전통적 國內價値論을 넘어서 오히려 國際的 價値 그것을 간절히 요구하는 동시에 그로써 國內的 價値를 포괄할 만한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 어차피 적어도 모든 交易商品의 본래적 市場價値인 國際的 價値化는 점차 진정한 商品價値化하는 과정으로 보여지는 경향이다. 따라서, 지금 단순히

10) K. Marx [1].

國內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일견 商品의 體化價値를 떠난 견해인 것 같기도 하나 그것은 國內價値의 경우와도 다름없이 時代착오에 불과하다. 혹시 이러한 基準 문제 자체 外樣만을 곧 國境의 障壁을 土地生産과 같이 보아서 差額地代의 실체인 '虛偽의 社會的 價値의 개념을 여기에 導入할지도 모르나 그점 또한 國際經濟의 경우 次元을 달리하고 있다. 어쨌든 國際的 價値論은 진부한 역사적 문제인 동시에 새로운 해명의 조건을 풍부히 갖는 범주의 성격이다.

◆ 참고 문헌 ◆

1. Marx, K., *Das Kapital*, I, 1876.
2. _____, *Das Kapital*, II, 1894.
3. Ricardo, D., *Principle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1814.